



작은 배려로 큰 차이 만드는 ‘성심기획출력인쇄’ “출력 전 프린트 · 이중삼중 확인 절차로 실수 제로화”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인현동1가에 위치한 성심기획출력인쇄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94년 설립된 성심기획출력인쇄(대표 강영덕)는 필름출력기 돌레브 V2와 CTP출력기 코닥트렌드세터 800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름 및 CTP 출력외에도 기획 및 디자인, 책자인쇄 등 기획부터 인쇄까지 모든 인쇄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동중학교, 간재울중학교, 중기중앙회 서울연희본부, 옷찾사, 성석교회 등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을 직접 납품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척 소개를 통해 사진제판사로 입사하게 된 강영덕 대표는 70년대 후반에는 암실에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밝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가 이제는 필름, CTP로 사진제판기술이 발전된 것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강영덕 대표는 “암실, 명실에서 작업하던 게 옛그제 같은데 이제는 필름출력 작업조차 거의 사라지고 CTP 출력이 일반화됐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트렌드세터 800은 2007년 도입했던 코닥 로템보다 2배 이상 속도가 빠르고, 오토포커스 등 최신 기술이 탑재돼 있어 운용은 쉽고 품질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꼼꼼한 확인으로 오류발생 제로 도전

예전에는 편집디자이너가 작업물을 출력의뢰할 때 직접 외장하드를 들고 출력실을 방문했다. 수분에서 때로는 몇 시간을 기다리며 필름이 모두 출력되길 기다리다가 필름교정을 보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편집디자이너가 데이터를 웹하드 등에 올리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의뢰 방식이 달라지면서 편집디자이너는 편하게 작업물을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출력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강영덕 대표는 “예전에는 편집디자이너가 출력실을 방문해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작업자가 출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담당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 배열이나, 페이지수, 완성규격, 접지형태 등 출력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을 바로바로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은 편집디자이너가 출력실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출력시 오류나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편집디

자이너가 잘못 작업한 작업물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고객들의 실수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꼼꼼한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심기획출력인쇄에서는 거래처에서 작업물을 의뢰한 경우 ▲ 표지(표1, 표2, 표3, 표4) ▲오버프린트 ▲여분 처리 ▲페이지 수 ▲접지형태 및 제책방식 ▲별색 ▲출력(완성)된 규격 ▲인쇄사 등 총 6개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다.

또한 출력실에서 수정작업이 이뤄진 경우를 비롯해 출력이 진행되기 전 반드시 편집디자이너에게 PDF를 보내, 작업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성심기획출력인쇄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작업파일을 종이로 프린트해 확인하는 등 이중삼중의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영덕 대표는 “출력은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객이 의뢰하는 작업물을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잘못 작업한 것이 있으면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페이지가 많은 잡지나 책의 경우 종이로 프린트해 꼼꼼히 확인한다.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프린트를 통해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물론이고 우리도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성심기획출력인쇄에서 작업한 인쇄물들

성심기획출력인쇄 연혁

- 1994년 성심프로세스 설립
- 2001년 성심기획출력센터로 업체명 변경
- 2001년 필름출력기 돌레브 V 도입
- 2004년 필름출력기 돌레브 V2로 교체
- 2007년 CTP출력기 코닥 로템 도입
- 2011년 CTP출력기 코닥 트렌드세터 800 도입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4길 25-7, 2층(인현동1가, 월드빌딩)
- 전화 | 02-2263-7365 팩스 | 02-2263-7385



1. 성심기획출력인쇄 강영덕 대표



2. 성심기획출력인쇄 사업장



3. 코닥 트렌드세터 800

미니인터뷰 성심기획출력인쇄 강영덕 대표 “인쇄 · 출력은 서비스 업종, 고객에게 친절하...”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층무로 지역은 가격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도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고객들은 점점 더싼 것만을 요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출력실에서 품질은 생각하지 않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품질이다. 우

리 회사는 정품 판재를 사용해 인쇄품질을 고급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출력시 모든 작업물을 종이로 프린트해 확인하는 등 출력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

출력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이 말하는 얘기를 잘 듣고 메모한 뒤,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